

2019년 4월 12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헬스케어 업종 부진으로 위축 버니 샌더스 의원 ‘Medicare for all’ 법률안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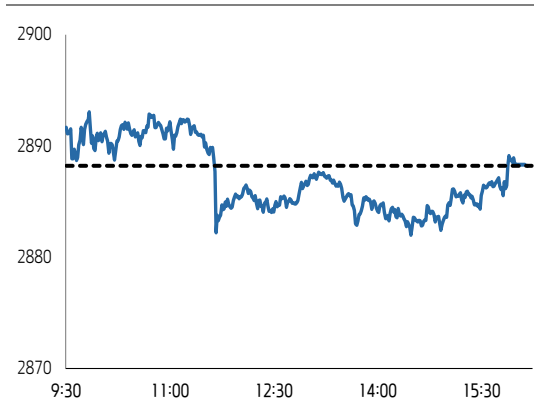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요인: ①연준위원들 발언 ②미-중 무역협상 기대 ③헬스케어 업종 급락

미 증시는 실적 발표를 앞둔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 바이오 및 에너지 업종이 부진하며 하락 전환. 한편, 주요 연준위원들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낙폭은 제한(다우 -0.05%, 나스닥 -0.21%, S&P500 +0.00%, 러셀 2000 -0.15%)

미 증시는 ①연준위원들의 발언 ②미-중 무역협상 기대 ③헬스케어 업종 급락 등의 영향을 받음. 장 초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결정은 매우 적절하다” 라고 주장.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는 견고하며, 일부 둔화 요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라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한편,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요구였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방 양보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짐. 연준위원들의 발언과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미국 국채금리와 주식시장, 달러화는 상승

한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Medicare for all’ 법률안을 공개하자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폭을 확대. 이번 법률안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4 명 포함 14 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 샌더스 의원은 선진국 중 미국의 일인당 치료비가 만달러를 넘는 등 가장 높지만 서비스 질은 떨어진다고 주장. 현재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약 8.8%인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모든 시민이 적용을 받게 됨. 비록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상원의 약품가격 청문회에 이어 ‘약가인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이는 바이오 업종의 실적 둔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담.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24.44	+0.00	홍콩항셱	29,839.45	-0.93
KOSDAQ	766.49	+0.83	영국	7,417.95	-0.05
DOW	26,143.05	-0.05	독일	11,935.20	+0.25
NASDAQ	7,947.36	-0.21	프랑스	5,485.72	+0.66
S&P 500	2,888.32	+0.00	스페인	9,445.40	+0.41
상하이종합	3,189.96	-1.60	그리스	764.13	+1.14
일본	21,711.38	+0.11	이탈리아	21,684.84	+0.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헬스케어 업종 부진

테슬라(-2.77%)는 핵심 배터리 공장 확장을 연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하락 했다. 전일 장 마감 실적을 발표했던 배드배스 앤 비온드(-8.76%)는 가이드스 하향 조정 여파로 급락 했다. 연초 대비 65%나 급등 했던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 치포틀 멕시칸 그릴(-1.57%)은 제프리스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했다. 바이오젠(-2.68%), 버텍스(-2.76%) 등 바이오 업종과 유나이티드 헬스(-4.31%), CVS헬스(-2.19%) 등 헬스케어 업종 등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Medicare for all' 법안을 공개하자 하락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4명도 관련 법안의 공동 발의자가 되면서 약가 인하를 비롯한 많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여파다

산업용품 제조회사인 Fastenal(+5.05%)는 양호한 실적 발표로 급등 했다. 캐터필라(+0.97%), 디어(+0.96%) 등 기계 업종과 보잉(+1.43%), 록히드마틴(+2.16%) 등 항공기 제조업종, 마이크론(+0.26%) 등 일부 반도체 업종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로 상승 했다. JPM(+0.84%), 씨티그룹(+0.60%)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35%	대형 가치주 ETF(IVE)	+0.03%
에너지섹터 ETF(OIH)	-0.28%	중형 가치주 ETF(IWS)	+0.21%
소매업체 ETF(XRT)	-0.64%	소형 가치주 ETF(IWN)	-0.01%
금융섹터 ETF(XLF)	+0.60%	대형 성장주 ETF(VUG)	-0.06%
기술섹터 ETF(XLK)	-0.13%	중형 성장주 ETF(IWP)	+0.2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5%	소형 성장주 ETF(IWO)	-0.26%
인터넷업체 ETF(FDN)	+0.01%	배당주 ETF(DVY)	+0.06%
리츠업체 ETF(XLRE)	-0.11%	신흥국 고배당 ETF(DEM)	-1.13%
주택건설업체 ETF(XHB)	+0.7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85%
바이오섹터 ETF(IBB)	-1.70%	미국 국채 ETF(IEF)	-0.23%
헬스케어 ETF(XLV)	-1.23%	하이일드 ETF(JNK)	+0.22%
곡물 ETF(DBA)	-0.47%	물가연동채 ETF(TIP)	-0.23%
반도체 ETF(SMH)	-0.10%	Long/short ETF(BTAL)	-0.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8.68	+0.03%	+1.34%	+2.77%
소재	359.06	-0.06%	-0.87%	+3.58%
산업재	642.78	+0.88%	-0.69%	+2.70%
경기소비재	931.13	+0.12%	+0.72%	+7.21%
필수소비재	578.16	+0.11%	+0.99%	+2.45%
헬스케어	1,049.49	-1.21%	-0.79%	-1.01%
금융	442.11	+0.56%	+0.25%	+0.54%
IT	1,338.34	-0.12%	+0.89%	+5.69%
커뮤니케이션	162.85	+0.15%	+0.36%	+2.72%
유틸리티	293.83	+0.55%	+0.71%	-0.07%
부동산	225.94	-0.14%	+0.53%	+2.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제한된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6% MSCI 신흥 지수 ETF 는 1.08%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437 계약) 여파로 0.50pt 하락한 287.8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40.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조정을 보였다. 특히 S&P500 1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나스닥이 연초 대비 20% 상승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어져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9% 상승해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차츰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 분기에는 견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ECB, FED 등의 발표를 감안 조정폭도 제한되고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당분간 상승과 하락이 막혀있는 좁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늘은 중국의 3 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조정을 보일 수 있으나,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지표 개선 지속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치(20.4 만건)나 예상치(21.1 만건)을 하회한 19.6 만건을 기록해 1969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 주 평균도 지난주 발표치(21.4 만건)을 하회한 20.7 만건으로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3 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지난달 발표치(mom +0.1%)는 물론 전망치(mom +0.4%)를 상회했다. 전년 대비로는 2.2%를 기록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5 상승 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2.4% 상승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했다. 특히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원유시장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성장 둔화가 이어져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평균 140 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은 유지했다. 이러한 IEA 보고서 결과에도 원유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요인은 결국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차익유구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에 이어 일부 OPEC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산유량 감소를 빌미로 감산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견고한 고용지표 및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달러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시기 연장 소식이 알려지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제채리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969 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여전히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전월 대비 0.6% 상승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금은 차익실현 매물과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도 달러 강세 등으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보합을 보였고, 철근은 0.53%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3.58	-1.59	+2.38	Dollar Index	97.170	+0.23	-0.14
브렌트유	70.83	-1.25	+2.06	EUR/USD	1.1256	-0.16	+0.31
금	1,293.30	-1.57	-0.08	USD/JPY	111.64	+0.57	-0.02
은	14,867	-2.47	-1.44	GBP/USD	1.3059	-0.24	-0.14
알루미늄	1,860.00	-0.21	-1.85	USD/CHF	1.0034	+0.07	+0.34
전기동	6,408.00	-0.87	-0.67	AUD/USD	0.7122	-0.68	+0.14
아연	2,865.00	-0.28	-1.10	USD/CAD	1.3374	+0.41	+0.11
옥수수	368.75	-0.54	-1.47	USD/BRL	3.8558	+0.81	-0.07
밀	465.50	+0.87	-1.74	USD/CNH	6.7278	+0.13	+0.16
대두	908.75	-0.71	-1.17	USD/KRW	1139.40	+0.07	+0.27
커피	92.70	-4.19	-5.21	USD/KRW NDF1M	1141.00	+0.37	+0.4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497	+3.21	-1.81	스페인	1.001	-3.90	-10.60
한국	1.872	+0.50	0.00	포르투갈	1.127	-3.60	-13.20
일본	-0.055	-0.20	-1.10	그리스	3.339	-7.10	-26.30
독일	-0.009	+1.70	-0.30	이탈리아	2.515	+10.60	-0.20